

도수로를 설치하며, 소단내 배수로를 설치하여 강우의 침투로 인한 토사 및 암반에 포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압은 비탈면의 안정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탈면 내부의 불연속면에 작용하는 수압을 낮추어야 비탈면의 안정성을 높여 보강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탈면의 수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지표수가 인장균열이나 절리등의 틈새를 통하여 비탈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잠재적인 비탈면의 파괴면 근처에 수압이 작용하고 있으면 지표배수 및 맹암거공, 수평 내지 수직 배수공과 같은 적절한 배수공법을 적용하여 수압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 전도파괴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 시공시 부석 및 뜯돌 제거 후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및 Random Rockbolt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Random Rockbolt 설치각도는 절리면 방향성에 따라 현장감독관과 상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Face Mapping을 통한 지층확인 및 절리면의 특성을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이 발견될 경우 비탈면 안정을 재검토 후 기울기 완화 및 옹벽 구조물 등의 보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본 과업구간의 기반암은 대부분 니질암 내지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탈면 시공시 우수와 대기의 노출에 의해 빠른 풍화가 예상되므로 시공시 식생에 의한 법면 보호공법이 조기 회복되어야 한다.
- 암반의 경우는 토사층에 비하여 각 대상지역마다 변화가 심하므로 설계단계에서 조사된 암반절리의 주향 및 경사와 불연속면의 특성이 추정치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암반 비탈면의 안정성 분석은 수치적인 계산에 의한 안정성 평가보다 시공시 불안정한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보강대책 등에 의해 보강하여 비탈면붕괴 또는 낙석사고 등을 없애야 한다.
- 시공 중 안정해석을 위한 조사는 비탈면 시공 중에 파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을 찾거나 파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기본적으로 깎기면 현황도 작성(face mapping)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형조건, 비탈면규모, 지질상태, 토질 및 암반상태에 따라 본 조사의 방법을 조합하여 실시한다.
- 시공 중 안정해석을 위한 조사는 지반조건 및 비탈면의 규모에 따라 조사빈도를 다르게 수행할 수 있다. 일반 깎기비탈면(연직높이 20m 미만)은 깎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1회 이상 실시하고, 대규모 깎기비탈면(연직높이 20m 이상)은 중간정도 높이(약 20m 내외)까지 깎았을 때 1회, 깎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1회 이상을 실시한다.